

사탄의 무기- 괴기 공포물

"해마다 여름철이 돌아오면 각 방송사마다 앞을 다투어 '납량특집'이란 것을 내보냅니다. 납량(納涼)이란 말은 원래 '여름 더울 때에 서늘하게 바람을 쐬다'라는 뜻인데, 아마도 방송사에서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프로를 만들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무더위를 잊어버리게 하자는 취지로 사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납량 프로 = 괴기·공포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방송관계자들이 "여름엔 그저 서늘한 귀신 이야기가 최고"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프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방송사마다 으스스한 소재의 드라마를 특집으로 마련해 시청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는데, 그 스타트를 끊은 것이 KBS2 TV의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회성 납량특집 단막극으로 계획하고 방영했으나 30%대의 시청률을 올리자 계속해서 '나비의 한', '덕대골', '사녀', '은장도' 등의 시리즈물을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프로는 7년간의 공백을 깨고 새롭게 편성한 것으로 과거 12년 동안 방송되었던 550여 편 중 가장 흥미 있는 15편만을 엄선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MBC TV의 <이야기 속으로>가 공포·괴기로 그 소재를 바꿨고, <테마게임>도 비슷한 유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괴기·공포 시리즈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KBS2 TV <코미디 일번지 - 캠퍼스 공포>, <토요일 전원출발 - 망령지곡(亡靈之哭)> 등의 오락성 프로까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MBC도 이에 맞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 스타 공포체형>, <일요일 일요일 밤에 - 퇴마열전> 등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성격의 프로들은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미디 일번지 - 캠퍼스 공포>에서 수원 모 전문대의 귀신 이야기를 다루었을 때 (코믹하게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여학생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두워지기 전에 서로 먼저 학교를 빠져나가려고 서둘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의 이야기들은 그 소재가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근거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심취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유령, 귀신, 환생, 둔갑술, 복수 등의 그릇된 가치관과 어둠에 속한 일들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일에 대한 불건전한 관심은 사탄이 노리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루이스(C.S. Lewis)는 그의 명저 「악마의 편지들」(The Screwtape Letter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마귀에 대하여 두 가지의 그릇된 극단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태도로서 모두 똑같이 잘못된 것이다. 그 중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되 그것에 대해 불건전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마귀는 이 두 가지의 그릇된 태도를 모두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미술사를 똑같이 환영한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반쯤 감은 채 무서워 벌벌 떨면서도 공포·괴기 영화에서 눈을

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악(惡)에 대해 어떤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의 일들에 대한 불건전하고도 지나친 관심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60-70년대에 미국에서 사탄주의에 대한 붐이 일어날 때 거기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엑소시스트'와 '로즈마리의 아기'(Rosemary's Baby)라는 두 편의 공포 영화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사탄숭배자 앤톤 라베이(Anton S. La Vey)가 어린 시절부터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등의 공포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과거·공포 영화들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謹慎)하는 마음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가장 큰 발판을 제공해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두려움은 사탄의 명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범람하는 왜곡된 낭랑특집물, 과거·공포물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과 태도는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롬 16:19下)

손종태/기독교문화 사역자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